

광주환경공단, 악취 해결 총력

전담부서 신설 5곳 악취 측정

전국 최고 수준 배출시설 운영

광주의 대표적인 민원인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환경공단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별점검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쓰레기의 양이 폭증하고, 쓰레기 처리는 늦어지면서 곳곳에서 악취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도심 악취는 발생물질이 다양하고, 원인 또한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른 대기 오염물질과 달리 그 발생원을 관리하고 줄이는 것도 어려워 공단의 대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12일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음식물 자원화시설 등 이 지역 환경시설의 악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악취를 줄이기 위해 최근 악취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 전담부서는 매달 광주 지역 환경시설 주변과 상무 시민공원, 유덕IC 부근 등 5개 지점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해 분석하고 있다. 복합악취란 광주지역 대기 1m에 담긴 악취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공기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수치가 낮을수록 악취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시 등과 합동으로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효과를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공단은 법적 배출 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정해 배출구는 300배 이하, 부지 경계선에서는 7배 이하로 악취를 배출하고 있다. 법적 배출 허용기준은 각각 배출구 500배, 부지 경계선 15배이다.

외부 평가도 더욱 꼼꼼하게 받고 있다. 2015년부터 광주시, 외부 전문가, 시민단

체 등의 악취전문가 14명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 개선 TF팀’을 구성해 지난 2년여 동안 총 16차례 TF팀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악취 관리를 하고 있다.

또 최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설치된 악취 배출시설은 설치 후 2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성능이 확인됐다. 환경공단이 악취 분석 공인기관 2개소에 의뢰, 총 12회에 걸친 성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악취 배출농도가 성능기준인 300배를 훨씬 밑도는 165~173배로 검출됐다.

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은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쉬우며 특히 악취 배출원으로 가장 큰 오해를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든 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 주민들도 납득할만한 효과를 만들어 시민이 만족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1일 광주시청 1층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사단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답이다...광주시, 강사단 양성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김병완)는 지난 11일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드림실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사단을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교육강사들 중 2년 이상 활동을 해 온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46명이 최종 수료했다. 교육과정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해’를 시작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깔깔 웃으며 수업을 시작하는 꿀팁’, ‘문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컨설팅’, ‘초등학생 수업의 실제’ 등으로 구성됐다.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학습을 통해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 능력, 태도 및 가치를 발달시켜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삶을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는 지난 11일 2017년 광주 인권마을 성과발표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인권마을은 지난 2013년 3곳으로 시작해 5년 만에 13곳으로 늘었다. <광주시 제공>

문화제·공연...광주 인권마을 13곳 공동체정신 실현

광주시가 지난 2013년 인권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인권마을 조성 사업으로 5년만에 광주에 13개의 인권마을이 만들어졌다. 인권마을은 마을 안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해 지역민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인권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광주시는 12일 “지난 11일 2017년 광주 인권마을 성과발표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인권마을 조성사업은 연차별로 새로운 인권마을 만들기 모델을 창출하고 다른 마을의 공동체만들기사업에 방향을 제시, 인권마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3개 마을로 출발한 광주 인권마을은 마을 주민이 스스로 인권문화를 형성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어 사업 시행 5년여 만에 13개로 확대됐다.

13개의 인권마을은 각 마을의 특색에 맞춰 인권문화제, 인권캠프, 인권지도 그리기, 인권교육 등을 진행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더불어 자체적인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동구 밤실·주남마을, 서구 금호·풍암마을, 남구 노대·월산마을, 북구 문산·일곡·중흥·용봉마을, 광산구 수안·하남·운남마을 등이다.

광주에서 가장 먼저 인권마을로 참여한 운남마을의 경우 ‘삶터에 뿌리 내리는 인권’을 주제로 ▲터불어락 인권 인형극 ▲청소년 인권 씨앗방 ▲마을공리 소모임 ▲인권마당 행사 ▲주먹밥 오월공동체 행사 ▲416 추모행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마을 내부에서 실현 가능한 주민인권활동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처음으로 인권마을 사업에 뛰어들어 문산마을은 마을학교 꿈C, 5월 인

권문화제, 작가발굴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이상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주제로 참여한 프로그램을 주도,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 인권마을을 첫 시도한 용봉마을은 풀뿌리위원회 중심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기획·특별사업, 풋볼 등 3개 사업을 벌여왔다. 용봉마을은 주민이 주도해 생명·인권·민주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총회 개최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또 북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풋볼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민들이 정지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8일 수원에서 한국인권재단 주관으로 열린 ‘제3회 한국인권회의’에 참석해 광주 인권마을 사례와 성과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건강레시피’ 출간

광주시 북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광주·전남영양사회장 장서영)는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60종의 레시피를 개발해 ‘바르미의 건강레시피 시리즈’ 책자를 12일 출간했다.

이번 책자는 어린이 기호를 반영해 성장에 도움을 줄 메뉴와 레시피, 재료와 분량, 영양성분 등을 소개하고 있다. 모두 3권으로 북구 관내 급식소에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에 수록된 레시피는 당돌이, 알콩달콩 공·우유먹기, 알록달록 채소 먹기 등 어린이의 건강 및 편식예방을 위한 것으로, 평소 어린이가 선호하지 않는 식재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진이 첨부돼 있다.

센터는 “가정과 시설에서 이 책자를 참조하면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북구, 규제개혁 자치구 평가 최우수

광주시의 ‘2017년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선정 평가’에서 북구가 최우수를 받았다. 북구는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지원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게스트하우스 내국인 수용 허용 등 광주 규제혁신 토론회 안전 건의 실적 등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 분야 사전 점검으로, 시가 지난해부터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는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4개 분야, 10개 정량지표로 나눠 실시했다.

시는 오는 연말까지 규제개혁 3개 우수기관과 우수 공무원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3>평택시 토지분양 (오픈)</h3> <p>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p> <p>■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p> <p>■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2)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3)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4)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p>010-6670-9800 010-7384-7800</p>	<h3>영광주택 매매</h3> <p>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직거래 010-6670-9800</p>	<h3>법률 경매</h3> <p>(주대신경매)</p> <p>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p> <p>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p> <p>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p> <p>※공동 사무실 쓰실분 1. 사무직 정직원 내근하실분 2. 자유 출퇴근 하실분 3. 공동사무실 쓰실분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010-6670-9800</p> <p>1)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토지 123평 건물 198평 방 14개 (월세 450만 예상)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5억6천</p> <p>2) 동구 불로동 (8층상가빌딩) 토지 619평 건물 2116평 구시청 사거리 1분 감정가 88억 → 최저가 62억</p> <p>3)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105평 건물 1,200평 월세 2천500만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17억5천</p> <p>4) 상무지구 (아파트상가) 토지 30평 건물 35평 감정가 1억 → 최저가 3천6백</p> <p>5) 북구 우산동 (3층 상가주택) 토지 66평 건물 172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p> <p>6) 첨단지구 아파트상가 (3층중 3층) 토지 20평 건물38평 감정가 2억 → 최저가 1억4천</p> <p>7) 광산구 신가동 (대방 아파트) 25층중 23층 (25평) 감정가 3억7백 → 최저가 2억1천5백</p> <p>8) 상무지구 (갤러리아아파트) 15층중 11층 (53평) 감정가 5억6천 → 최저가 4억5천</p> <p>9) 경기도 평택시 (주택) 토지 79평 건물 38평 송탄역 3분 감정가 5억9천 → 최저가 2억9천</p> <p>10) 강진군 칠량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4억6천</p> <p>11)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6억</p> <p>12) 군산시 나운동 (사우나) 토지 132평 건물 334평 사우나 운영시 월수익 2천이상 예상 감정가 21억 → 최저가 5억</p> <p>010-6670-9800 010-7384-7800</p>
--	---	--